미제－아이구! 저 《작전 계획》이
내 목을 조이는구나!

공 들인 보람

원 광수 그림

한길, 한 마음

최 경 희

—저 아저씨 길 좀 물읍시다. 생활 필수품 직장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생활 필수품 직장?!… 우리 제강소에서는 당의 붉은 편지 정신을 받들고 기계가 기계를 새끼치고 공장이 공장을 낳게 하여 수십 수백 가지의 일용 필수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뭘 만드는 데를 찾소. 아 이런 가정용 소공구함을 만드는데 말이요?

—아니예요. 소공구함 생산 직장이 아니라……

—아 그럼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주방 용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데를 찾는단 말인가요? 거기야 그야말로 가 볼 만 하지요. 부엌에 사람이 지켜 서 있지 않아도 밥이 타거나 설 걱정이 없이 맛 있게 만들어 내는 자동식 전기 가마, 우에서는 고기를 지지고 볶고, 밑에서는 반찬을 구울 수 있는 전기 곤로, 감자 껍질까지 깨끗이 벗겨 주는 자동식 채소 절단기, 고기 건, 고추 건 마음 대로 잘 써는 가정 용 조미료 분쇄기……기타 각종 제품이 생산되니까……

—아저씨 그런게 아니라……

—뭐, 그런게 아니라구?! 아, 그럼 옷에 물을 추기지 않고 다리미질을 할 수 있는 전기 다리미, 전자 세탁기, 가정용 랭장고를 만들어 내는 전기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찾는단 말이지?

—거기도 아냐요!

—그럼 대체 어느 직장을 찾는단 말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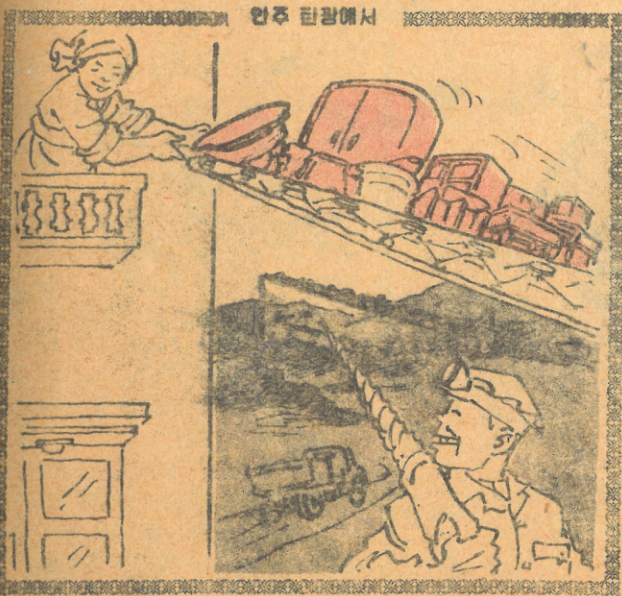
—이 제강소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기치 하에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여 일용 필수품 생산을 10 배로 확장하겠다고 결의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 호응하는 우리 기계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의 결의문을 가지고 오는 중인데…

—아, 우리 공장 생활 필수품 직장 전체 종업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구락부로 가는 길을 찾는단 말이지……하하, 그런걸 나는 또… 자 그럼 같이 갑시다. 나도

《강철은 걱정 말라!》라는 평로 직장 로동자들의 호응문을 가지고 가는 길이요.

도사—축지법에서 나온 기적이요?
둔갑술에서 나온 기적이요?
—이것에 의한 기적이요.

최 영근 그림

안주 탄광에서

—아니? 탄만 캐는 줄 알았더니 일용품도 캐는군요?
—폐두목과 절약 자재로 만들었으니 갱속에서 캐는 거나 같지요.

북청 생활 필수품 협동 조합에서

—아저씬 그렇게 많은 일용품들을 어떻게 땄나요?
—지방 원료에서 땄지요

주부를 대신하여

송 시영 그림

류 진

요즘 남조선에서 《이상》이란 말이 류행되고 있다.

말하자면 정상적이 아닌 것, 보통 현상이 아닌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례컨대 기후 조건이 이상해서 홍수 란리가 나면 이상 기후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날이 가물어 한재가 들면 이것도 역시 이상 기후—이런 식으로 물가 폭등도 이상 물가요, 정치계가 란장판으로 되면 정계의 기류가 이상하다. 그러구 문화 예술에서도 이상 문화, 이상 예술, 사회 기풍도 이상 풍조… 나중엔 남조선의 온 풍토가 이상하다고해서 이상 풍토란 말까지 뛰쳐 나오고 있다.

그래 남조선의 한 신문이 쓴 걸 보면 《구름과 바람이 사라지고 순한 우리들의 풍토가 되여주면 얼마나 살기 좋을 것인가! <노—말> 한 우리 풍토가 그립기만 하다》—이렇게까지 절절한 글을 쓰고 있다.

남조선의 이상한 풍토 우에 이그러져가는 이상한 그 모든 것—그것은 바로 미국의 식민지 풍토의 산물 이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배 주고 배 속 빌어 먹는식의 소위 《원조》의 18년, 주인은 억눌리고 불청객인 미국놈이 주인 행세를 하는 주객이 전도된 식민지 풍토, 그 우에서 내내 말로만 그친 간판만의 《자주자립》이 오직 예속과 굴종만을 가져온 그 치욕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을 때, 남조선 인민들은 비로소 식민지를 뒤덮은 침략의 먹구름과 비바람을 영원히 가셔 버리고, 영원한 내 것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새로 깨운
《월가종》《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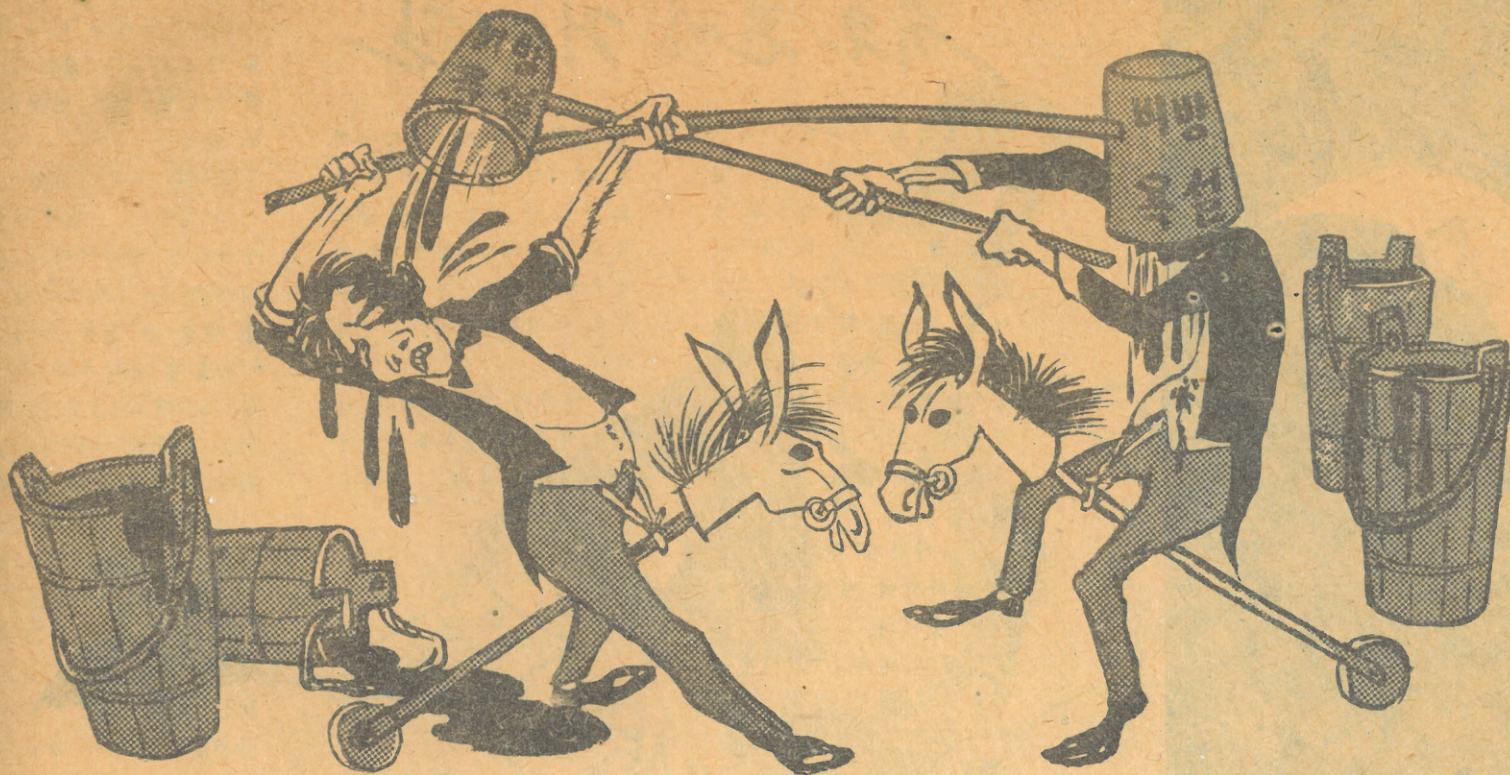
박 승희 그림

망치의 후과

서울의 주택 사정은 지난 6월말 현재로 전체 주민 세대의 근 절반인 48%가 세'방과 토막, 천막, 초막집 생활이라고 한다.

그나마 당장 수리를 해야 할 것이 15만 3천여 세대나 된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토끼도 굴이 셋이라 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령장인 사람이 먹지도 못 하고 입지도 못 하는 그 차에다가 비 바람을 가릴 단간 초막 하나 안겨 주지 못 하는 위정자들의 정치야말로 정치라기보다 망치(亡治)라 해야 할 것이다.

일상적인 그들의 《정치 활동》

박 승희 그림

《영업 개시》

박 승희 그림

얼마전에 경상북도 영천 상공에서는 괴뢰 공군 제트기들이 서투른 전투 훈련을 하다가 공중 충돌을 일으켜 제트기 2 대가 박살이 되고 그 파편에 또 한 대가 추락하였다.

이날 거의 같은 시간에 경기도 화성군에서도 역시 제트기를 타고 전투 훈련을 하던 미 공군 조종사놈이 무턱대고 폭탄을 떨구어 민가를 파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이 만성적인 절량으로 굶주려 쓰러지는 것만도 원통한데 놈들의 전투 훈련 사고로 난데 없는 화까지 입어야 하니 이거야말로 설상 가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언제 가야 남녘의 형제들은 전쟁의 불장란이 없는 평화로운 하늘 아래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는가?

어서 빨리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양키들을 몰아 내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달—여기가 분명 서울이
틀림 없을 텐데?

전 의남 그림

죽은 문서 거래질

일본의 여당인 《자유 민주당》이 다가 오는 일본 국회 선거를 앞두고 소위 당면 《10개 정강》이란 것을 발표했는데 그중에는 《한일 회담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속해서 한국과의 전면적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는 정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빨리 남조선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수작인 것이다.

일본 반동 지배층이 남조선에 대한 재침 기도를 이처럼 선거 강령에까지 명시해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남조선을 일본의 《합중국》의 일부로서 벌써 다 먹은 떡으로 여기는 모양이 분명하다.

하기야 남조선의 친일 친미 반동 지배층도 이미 매국 역적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한일 회담만은 성숙시키겠노라고 이미 충성을 맹세한 터이였으니 안팎 장단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겠지.

허나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지는 말지어다. 조선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조선 사람이니만큼 몇몇 매국노들이 제아무리 도장을 찍는다 해도 그것은 죽은 문서 거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갈수록 얌얌》

일본의 소위 농업 기술자들이 일본의 국회 의원을 앞세우고 20여 명이나 대거해서 남조선에 기여 들어 그 무슨 《시찰》이나 《공동 조사》를 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저번에 도꾜에서 《시찰단 결단식》까지 하고 남조선에 가져 올 《협조》의 미끼로서 약간의 농림 관계 서적이니 분무기니 농기구니 하는 것을 보따리에 꾸리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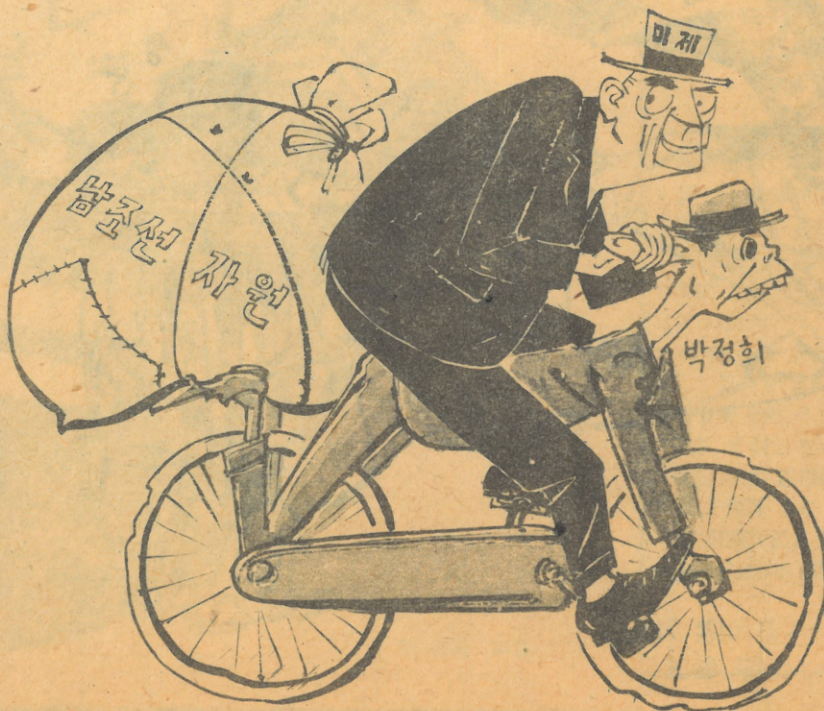
거동을 보니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공업센터니 어업 차관이니 해 가지고 공업과 수산업 부문에서 어지간히 따먹을 타산이 성숙되여 가니까 이제는 갈수록 얌얌이라고 그 옛날 《산미 증식》이니 《남면 북양 (南棉北羊)》이니 하는 식으로 《동척》의 재판을 차려 놓고 남조선 농촌까지 죄다 뜯어 먹을 검은 배'속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쯤 되고 보니 진고개 밀화 사탕에 녹은 구한국 말년의 망국 풍조가 점점 더 되살아 나는 감이 없지 않다.

《한미 협조》

안 창수 그림

《한일 회담》= 《미일 회담》

일본 외상 오—히라가 워싱톤에 가서 미 국방 장관 러스크와 장시간 회담을 하고 《한일 회담》 과 관련한 비밀 토의를 했는데 이 회담을 끝마치고 나서 오—히라는 말하기를 한일 회담은 기정 방침대로 현재의 진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추진시킬 것이며 남조선에서 소위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마지막 타결을 짓기로 합의를 보았다—이렇게 미일간의 공동 모의의 일단을 내 비쳤다.

소위 《한일 회담》 이라고 할진대 남조선 인민의 사활적 운명과 관련한 문제가 어째서 워싱톤에서 단지 미일 지배층간에서만 왈가왈부 다루어지느냐 말이다. 일찌기 외국의 어느 한 기자가 소위 《한일 회담》 이란 것이 사실인즉 《미일 회담》 에 지나지 않는다고 야유한바도 있지만 이번 러스크—오히라 회담의 결과는 이 말의 참뜻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준 것이다.

뒤' 골목 흥정

남
조
선

미제—내가 부른 금세가 적당해…
일제—더 눅게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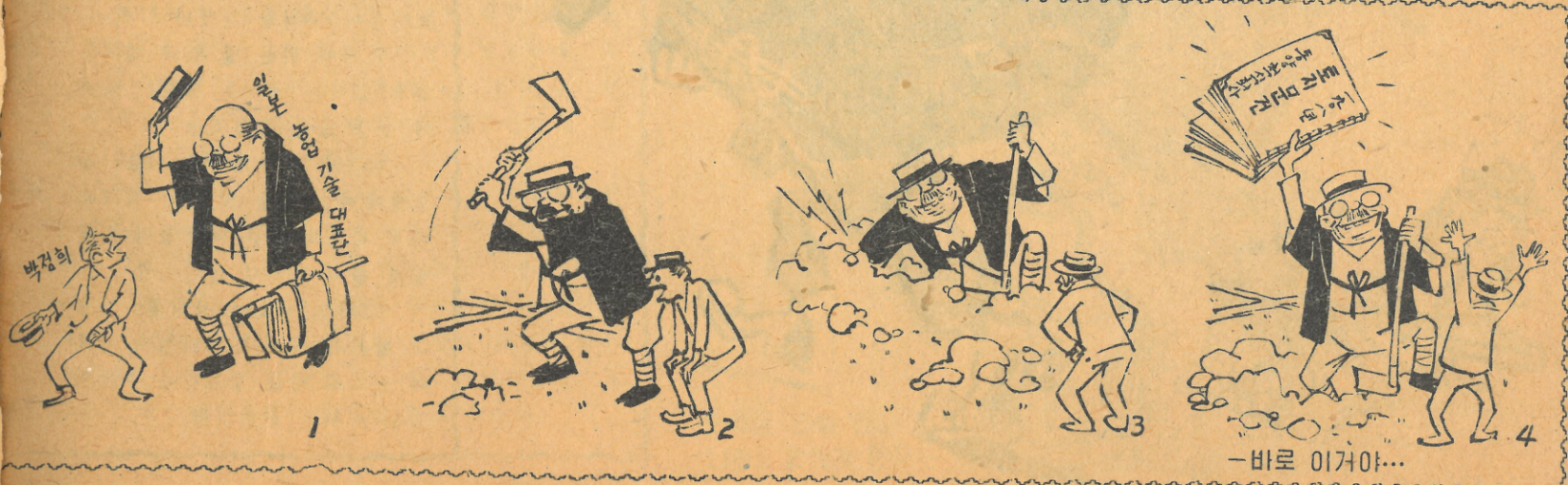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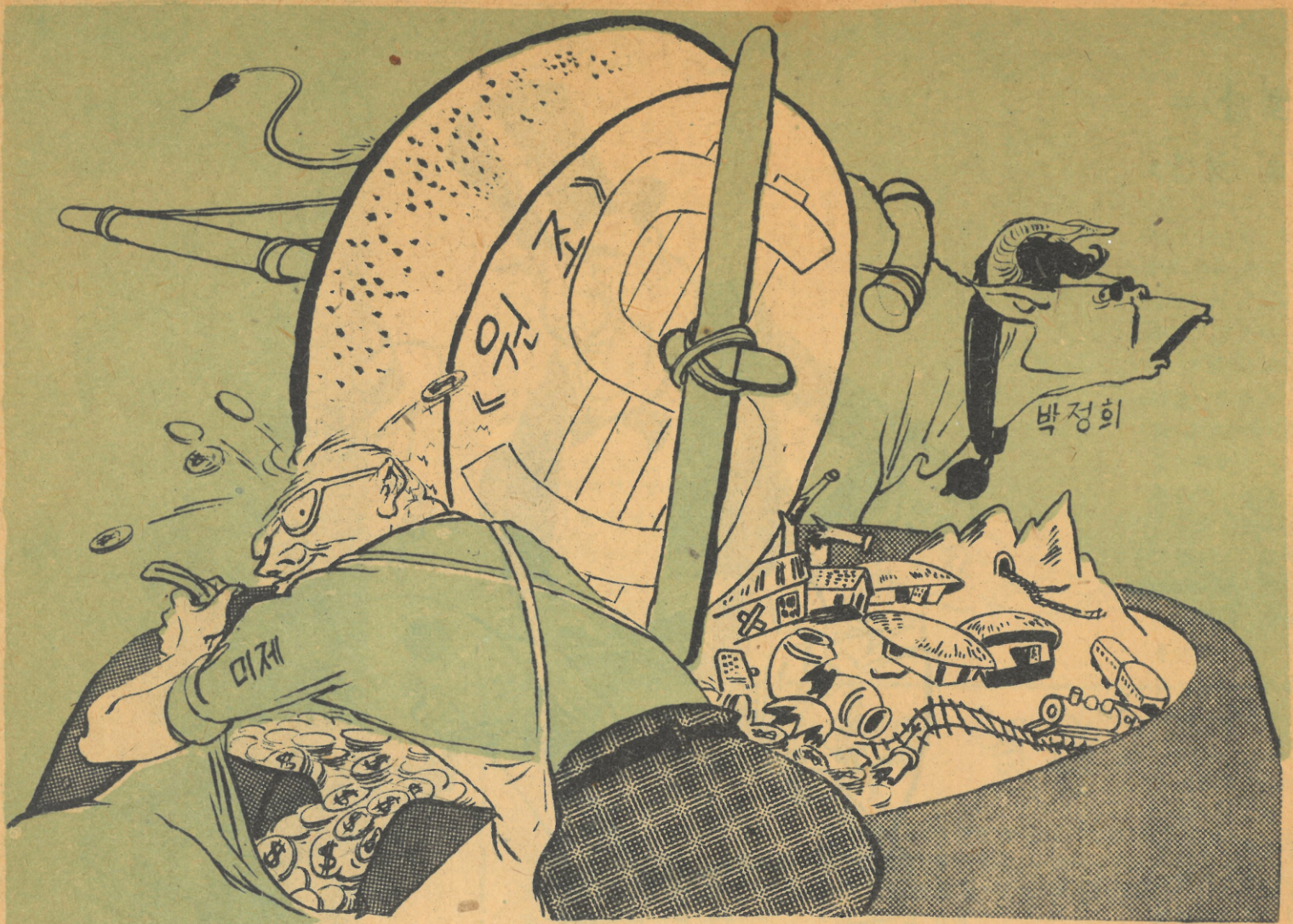
박 승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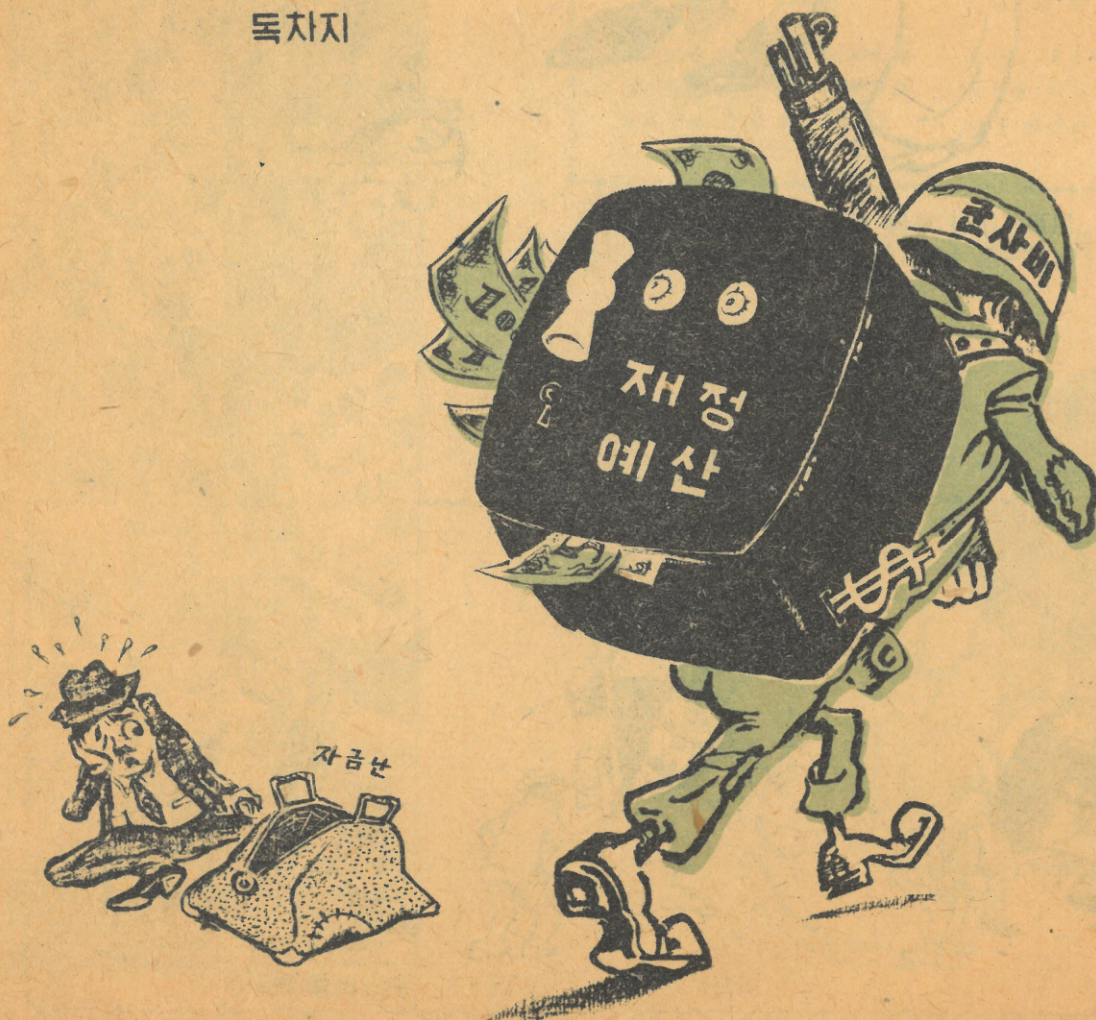
옛 상전 《돌아 오다》

안 창수 그림

강도 방아

박정희

미제

조 명식 그림

독차지

백 인균 그림

진짜 도

얼마전 서울 종로 경찰서 수직실에 도적이 들어 경찰관의 신분증이며 시계며 소지품을 몽땅 털어 갔다고 한다.

글쎄 도적을 잡는 경찰서 나으리들이 도적을 맞었다니 참…

하기야 되는 일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자유 대한》 에서야 무슨 일인들 없겠는가.

아무튼 도적을 잡는다는 포도청에서 도적을 맞게끔 됐으니 아무 세도도 없는 백성들이야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 남조선 사회를 그토록 범죄의 소굴이 되다싶이 암흑의 천지로 만든 장본인은 누구이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괴뢰군 징집 풍경

—각하! 신입대원 전원이 정렬했습니다.

송 시엽 그림

ㅎ 디산의 《감사론》
ㅏ 밤에 담벽을 뚫고
ㅓ쇠를 벗기고 자루
ㄹ상자를 열어서 옷과
ㅣ나 혹은 가마와 솥
ㅓ 가지고 도망하는
ㅣ를 도적이라고 할
ㅏ 아니다. 배가 고파
쁜 사람의 행위다》
해 도적질을 하게
태를 여러가지로 나
ㄱ 나서 결국은 인민
군림해서 가렴
ㄱ 온갖 토색과 횡포
해도 어느 누구도
ㅣ 못하는 바로 그런
참으로 큰 도적놈의
원흉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다산은 이 같은 큰 도적놈을 없애 버리지 않으면 백성은 죽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남조선의 어떤 신문은 《사흘 굶어 담 안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남조선에 도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 곧 민생고와 련결되는 현상이라고 옳게 지적했다.

그러니 남조선을 오늘과 같이 도적이 성행하는 생지옥으로 만든 진짜 도적놈의 괴수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사여탈의 권한을 쥐고 파괴와 략탈과 학살을 함부로 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라고 찍어서 말해야 할 것이다.

위조 도장

—아무도 인정 안하니
나라도 인정해 야지…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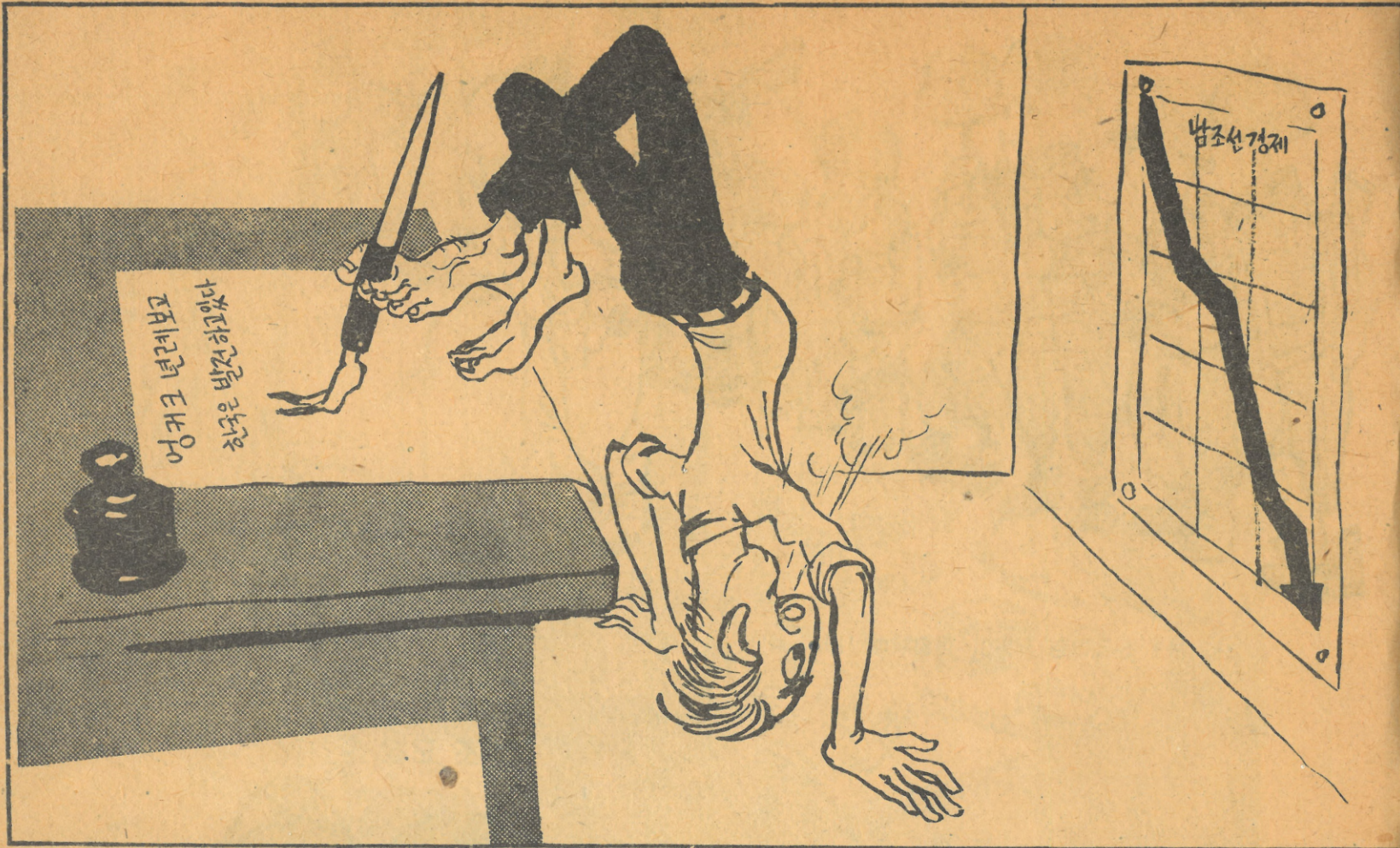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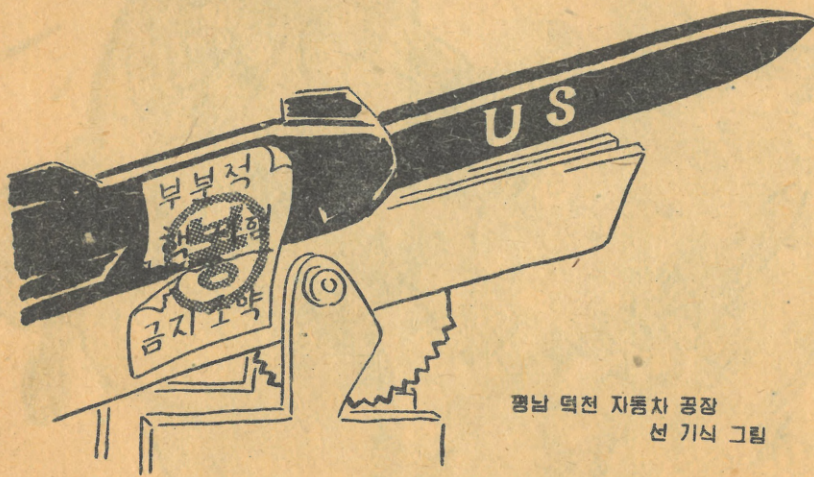
꺼꾸로 보고

박 승희 그림

뢰성 벽력

평양시 장 영환 그림

독자투고

《봉 인》

평남 덕천 자동차 공장 선 기식 그림

비상 응급 치료

함흥시 성천구역 서문동 리 중영 그림

로 철

미 재정성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4분기에 미국에서는 12 개의 보험 회사가 파산 당했다는 소식.

이 사실을 공포하면서 재정 장관 딜론은 불원한 장래에 《사퇴할 의사를 표명》했다니 어떻게 된 영문인가.

이에 대해서 지난 9월에 백악관에서 있은 《국가 안전 위원회》의 정형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케네디 : 국방 장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하여 보고하시오.

맥나마라 : 네, 지난 8월 한달 동안에 우리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손실이라고는 베네주엘라에서 여섯 개의 송유관과 수도의 방송국이 파괴되고 과테말라에서는 세 개의 농장, 니카라과에서는 2 개 대대의 아군…

케네디 : 그게 대단한 《성과》요? 당신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라틴 아메리카에 투자한 142 억 7,400만 딸라가 날아 가고 말겠소. 재정 장관 우리 손실은 모두 얼마요?

딜론 : 각하, 파괴는 많이 당했지만 손실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회사, 공장, 농장들은 모두 동산 보험 회사에, 우리 병사들과 라틴 아메리카 《맹국》 병사들은 모두 생명 보험 회사에 들어 있으니까요.

케네디 : 그러나 그 보험 회사들도 미국 것 아니냐 말요.

딜론 : 정확히 말씀 드리면 각하의 포스톤 재벌 계렬의 보험 회사들이지요. 저로서는 한결 안심… (케네디는 포스톤 재벌의 사실상 주인이고 딜론은 그와 암숫인 멜론 재벌의 앞잡이이다.)

케네디 : 무엇이 어짜고 어째? 이놈의 자식들, 앞으로는 일체 보험 사절이다.

그러나 보험 회사의 《보호》 밖에 놓이게 된 딜론이 자기 상전을 위해 어찌 《장탄》 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사퇴할 의사》까지 표명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니, 그보다도 분노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 의해서 미국제 공장, 회사, 농장, 괴뢰 기관들이 련'이여 날아 나는 통에 보험 회사들도 모조리 파산당하고 있는 판이니 케네디는 어느 생명 보험 회사에 들었는지는 몰라도 단단히 목을 씻고 기다리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공동 성명》

게네디

최 영근 그림

분노의 불'길

《말레이시아 련방》을 조작한 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민족적 분노는 마침내 인도네시아의 수도 쟈카르타에서도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지난 18일 쟈카르타의 수천명 시민들은 《영국을 쓸어 없애라!》, 《말레이시아를 쓸어 없애라!》라고 웨치면서 영국 대사관을 불살라 버렸다. 격분한 인민들은 영국인의 집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승용차들과 가구들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수마트라의 메단에서도 영국 령사관과 말라이 령사관이 삽시간에 풍지 박산이 됐고 인도네시아의 로동 조합들은 고무와 차, 커피, 종려 재배원들과 석유 회사 등 인도네시아에 있는 전체 영국 회사들을 접수해 버렸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식민지 통치 력사에서 소위 119년의 력사를 자랑하던 영국인의 크리케트 구락부가 재'가루가 된 폭발적인 분노의 거리에서 영국 대사를 비롯한 영국 식민주의의 현지 관리들이 더는 발 붙일 데가 없어 우왕 좌왕 쥐구멍을 찾고 있다.

바야흐로 짙어가는 가을과 함께 제국주의 조락의 가을은 더욱 짙어가는 게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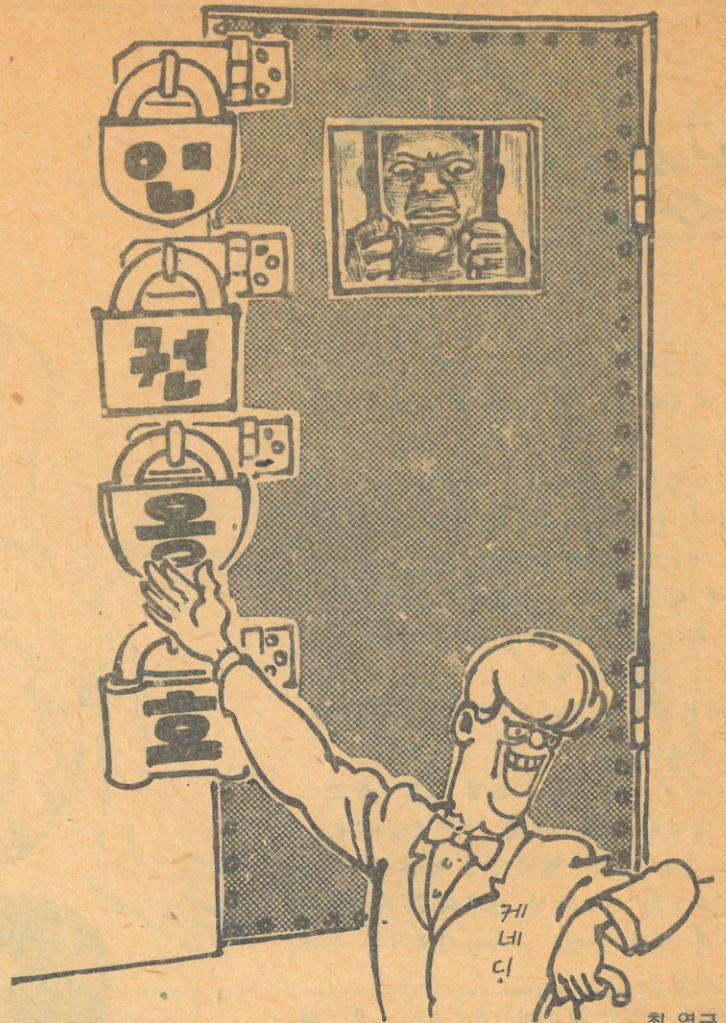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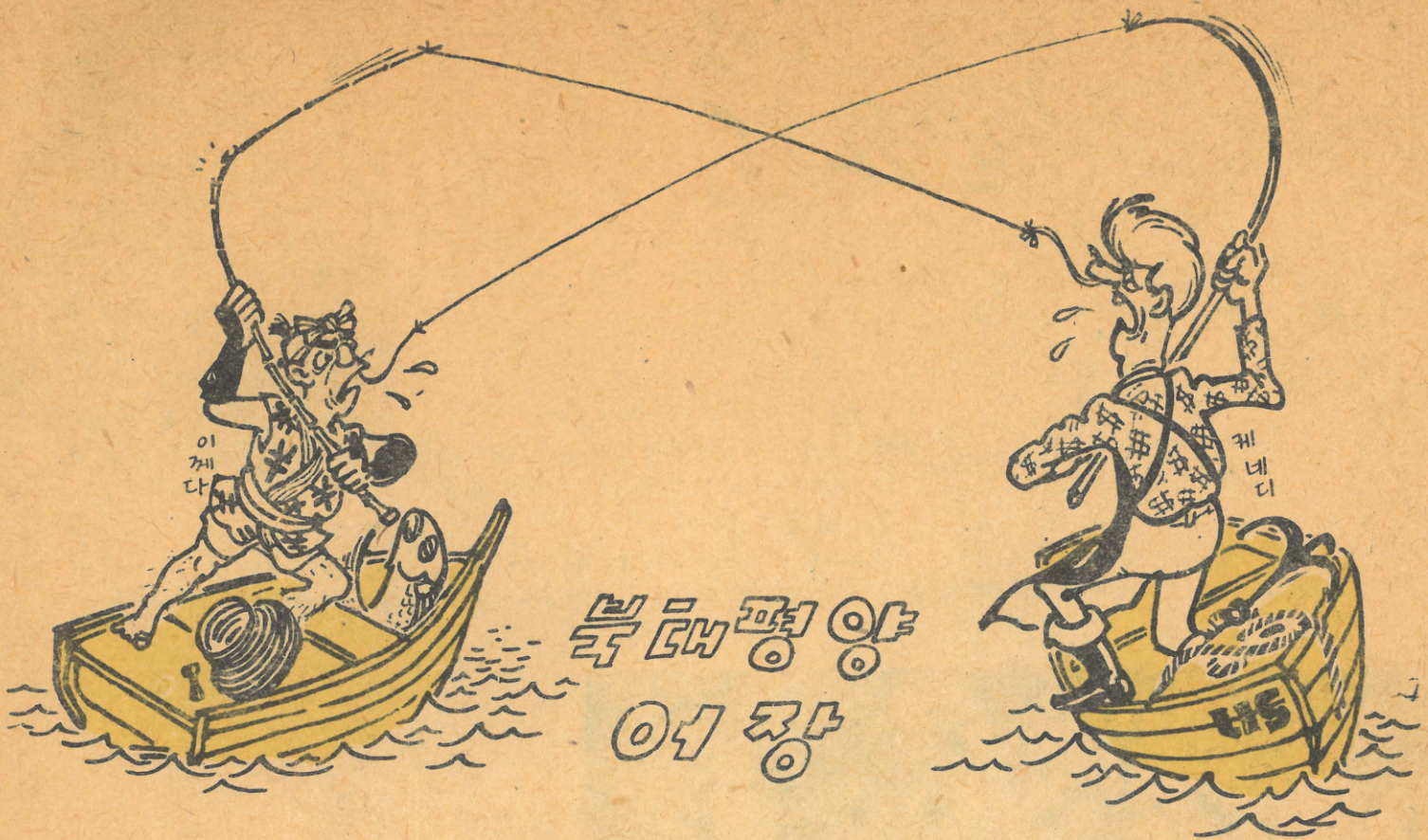
인간 백정이 하는 소리가…

—모든 민족의 인권을 이렇게 철저하고 믿음직하게 옹호할 것을 제기합니다.

침략
케네디
유엔제18차총회

케네디의 《평화》 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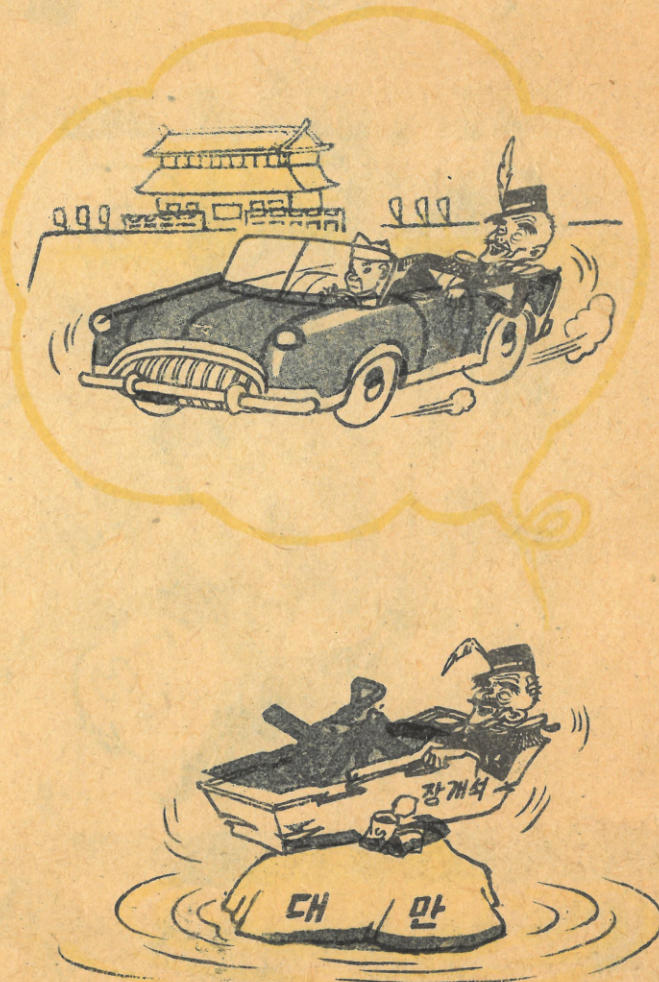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물'고기 전쟁》

최 영근 그림

열마전 이께다가 대만의 산 송장인 장 개석이가 아직도 중국 본토를 탈환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 대는 것을 보고 그런 망상이 어디 있느냐고 핀잔을 준 일이 있다.

이께다가 이런 발언을 한 데는 언중 유언 (言中有言) 이라고 제 딴에는 왕년에 아세아에서 소위 맹주의 직위를 회복하려는 양심을 품고 한 말이겠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장 개석은 분통이 터졌다. 그래서 노발 대발한 장 개석은 그 옛날의 근본을 캐면서 자기가 한 때 중국의 《총통》 노릇을 할 때에는 이께다는 만주에 기여든 일본 식민지 출장소의 하잖은 하급 관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제법 위세를 부리면서 이께다를 꾸짖더라는 것이다.

속담에 3천 갑자 동방석이도 저 죽을 날은 몰랐다는 격으로 한 평생 매국 배족으로만 늙은 산 송장이 나이 자랑만 하고 있는 꼴이야말로 실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원 광수 그림

나는 누구일가?

전 서 향

독자 여러 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 맞춰 보세요.

나의 본적지는 미국이고, 현 주소는 남부 월남의 사이공인데 집 없는 나그네로서 남부 월남 《대통령 관저》 앞의 시궁창에 딩굴고 있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나는 화려한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요.

나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했겠소. 남부 월남《정권》의 우두머리들도 나만 나타나면 그저 벌벌 떨면서 감히 머리를 쳐들지 못 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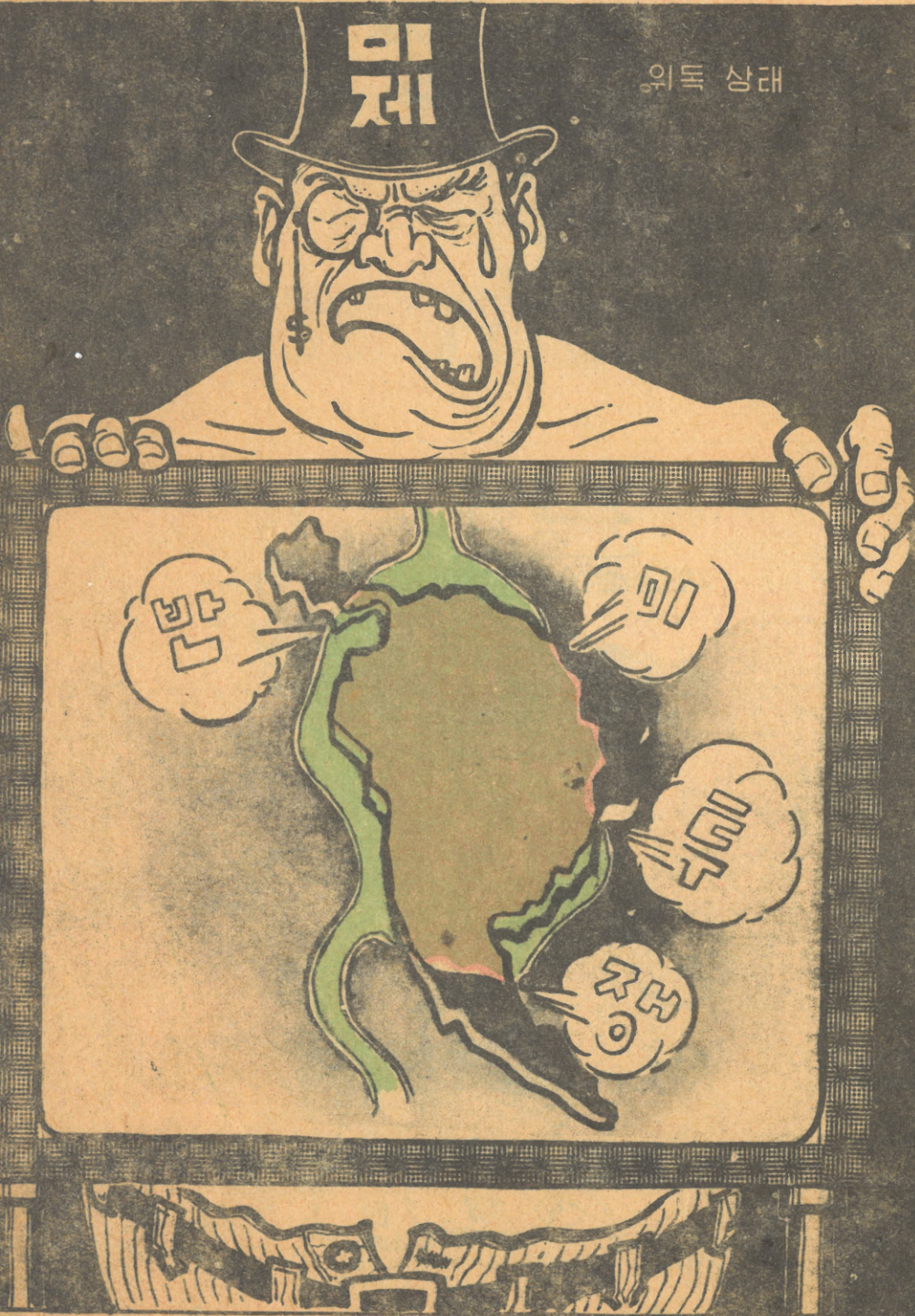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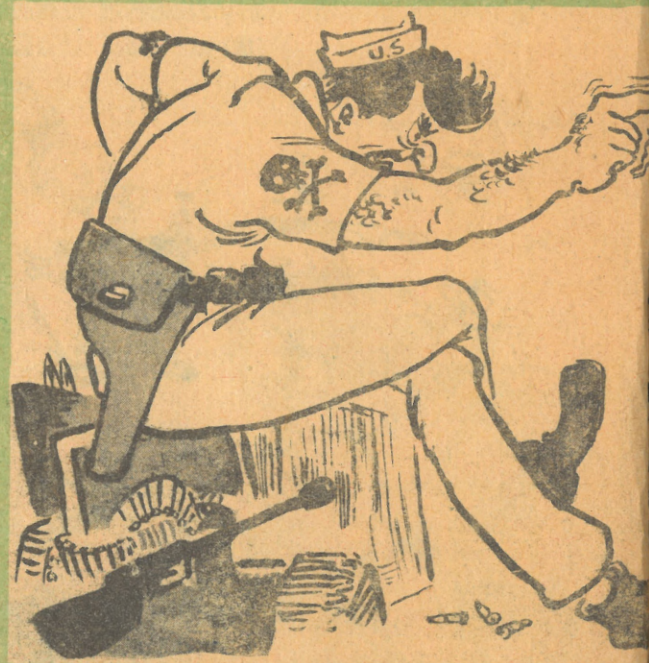
—…… 미국의 지시오. 인도지나 문제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시오!

—…… 미 국회의 결정이오. 항쟁 인원들을 몽땅 처치하고 백성들을 모조리 《전략촌》에 가두시오!

—…… 케네디 각하의 명령이오. 남부 월남 《정권》의 정치, 군사, 경제 통제권을 《미 군사 원조 사령부》에 넘기시오.

그러나 나의 명령, 지시가 그리 신통하게 통하는 것은 아니였지요. 케네디 각하의 동남 아세아에 대한 《평화 전략》 계획에 따라 70만 명의 괴뢰군과 2만 5천 명의 미군 《고문》이 투입되고 하루에 2백만 딸라의 군사비를 써 가면서 기쓰고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해 왔지만 결국은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에 몰리고 몰려서 전 령토의 4분의 3 이상을 빼앗기고 내종에는 사이공과 기타 몇 개의 큰 도시에 압축당하고 말았거든요.

위독 상태

최 영근 그림

사이공에

—까뗌! 무기는 다 어쨌어
—인민 무장대에 가 있습지

어느 날 이른 새벽부터 사이공에서는 도
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콩 볶는듯한 기관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수 많은 군중의 함성에 온 시가가 떠나

듯 하였지요. 듣건대 사이공 시내 전체
학생들과 불교 승려들이 들고 일어 났다
요.

나와 나의 동료들은 여러번 시위 행렬을 해산시켰고 부녀자의 머리를 까부시였고 대학생과 승려 여러 명을 쳐 죽였지요. 나의 온 몸은 무고한 인민들의 피로 물 젖었습니다.

그러나 물밀듯이 달려드는 분노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의 주인—미군 엠피 《고문》 나으리는 쥐구멍을 찾는 신세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하루 아침에 시궁창에서 딩구는 가련한 신세가 되였지요.

어째서 사람 살리라고 부르짖지 못하느냐고요? 나는 머리도 귀도 입도 눈도 손팔도 심지어는 심장도 없고 다만 있다는 것은 몸뚱이 하나 뿐이거든요.

나는 미국식 《원조》와 함께 묻어 다니는 엠피용 고무 방망이랍니다. 아직 나의 동료들이 남부 월남에서 계속 행패를 부리고는 있지만 오래지 않아 나와 같은 운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듣건대는 케네디 각하의 《전략 구상》을 안고 라오스, 타이, 비률빈, 말레이시아 등 동남 아세아에로 떠나간 우리 동료들도 나

보다 못지 않은 가련한 처지에 처해 있다는데 이만하면 미국의 《안전》도 이제는 풍전 등화격이 아니겠어요…

조 명식 그림

케네디—그들과 나는 상관 없어…

최 영근 그림

미제－보시다싶이 한국 사람
운전합니다.

화살 11호 (172)

발행소: 선 동 원 사

인쇄소: 평양 종합 인쇄 공장

1963년 10월 30일 발행

7－0990 값 50 전

앞표지 … 안 창수 · 그림
뒤'표지 … 홍 종호 그림